



Love Never Fails  
“사랑은 언제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 1코린 13,8 -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이후 10년을 돌아보며...

Vatican, 2016. 2. 25. - 26.

## 참석자

1. 사회복지 위원회 : 정성환 신부
2. 춘천교구 : 이명호 신부
3. 부산교구 : 이요한 신부
4. 서울대교구 : 김인권 신부
5. 서울대교구 : 이효림 담당관
6. 서울대교구 : 최은영 담당관
7. 서울대교구 : 위수경 담당관





# CARITAS

THURSDAY, FEBRUARY 25

## Morning session

09.00 Opening Prayer

09.15 Welcome address and introduction  
**Msgr. Giampietro Dal Toso**  
 Secretary, Pontifical Council *Cor Unum*

09.45 The Encyclical *Deus Caritas Est*: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H.E. Card. Gerhard Ludwig Müller**  
 Prefect,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10.45 Coffee Break

11.15 The Encyclical *Deus Caritas Est*: challenges  
 for Catholic charitable organizations  
**Dr. Michael Thio**  
 President General,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the Society of Saint Vincent de Paul*

12.15 Testimonies  
**Marina Almeida Costa**  
 Director, *Caritas Cabo Verde*  
**Roy Moussalli**  
 Executive Director,  
*Syrian Society for Social Development*

13.00 Lunch

## Afternoon session

14.30 The Jewish perspective of biblical love  
**Rabbi David Shlomo Rosen**  
 International Director of Interreligious Affairs,  
*American Jewish Committee*

# NUMQUAM

15.00 The Muslim perspective of mercy  
**Prof. Saeed Ahmed Khan**  
*Wayne State University*

15.30 Discussion

16.00 Coffee Break

16.30 The Christian message of charity:  
 new insights for modern man  
**Prof. Fabrice Hadjadj**  
 Director, *Institut Philanthropos*

18.00 Eucharistic Concelebration presided by  
**H.E. Card. Paul Josef Cordes**, President Emeritus,  
 Pontifical Council *Cor Unum*

FRIDAY, FEBRUARY 26

## Morning session

09.00 Morning Prayer

09.15 The ongoing relevance of *Deus Caritas Est* for  
 the Church's service of charity  
**H.E. Card. Luis Antonio G. Tagle**  
 President, *Caritas Internationalis*

10.15 Testimonies  
**Alejandro Marius**  
 President, *Asociación Civil Trabajo y Persona*  
**Eduardo M. Almeida**  
 Representative of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n Paraguay

10.45 Coffee Break

12.00 Audience with the Holy Father

13.00 Lunch

# EXCIDIT

## Afternoon session

14.30 Guidelines of Christian anthropology  
 for the Church's service of charity in  
 light of the Encyclical *Deus Caritas Est*  
**Prof. Fr. Paolo Asolan**,  
*Pontifical Lateran University*

15.15 The Encyclical *Deus Caritas Est*:  
 perspectives for the theology of charity  
**Prof. Rainer Gehrig**,  
*Católica Universidad de Murcia*

16.00 Coffee Break

16.30 Discussion and conclusions

18.00 Closing Eucharistic Concelebration  
 presided by **H.E. Card. Robert Sarah**,  
 Prefect,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and the Discipline of the  
 Sacraments

## Moderators

**Dr. Martina Pastorelli**,  
 President, *Catholic Voices Italia*  
**Prof. Luca Tuninetti**,  
*Pontifical Urbaniana University*





# Audience with Holy Father

교황 프란치스코 알현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 환영사

조반니 베드로 Dal Toso 몬시뇰 (사회복지평의회 Cor Unum 사무총장)

- 1) 감사인사와 환영의 인사
- 2) 초청인사들 소개
  - 1) Cor Unum의 일원인 각국 주교회의 대표단
  - 2) 교황청 부서 대표단
  - 3) 성좌를 대변하는 대사들
  - 4) 가톨릭 주요 자선단체 대표단
- 3) “자비의 특별히년”과 의미가 상통하고 ‘그 빛을 잘 발하고 있는’ 회칙
- 4) ‘빛과 지킴’을 제공하고 있는 회칙
  - 1) 우리의 믿음
  - 2) 용어의 정의
  - 3) 사랑의 봉사
  - 4) 자의교서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
  - 5) 결론
  - 6) 일정안내와 강사 소개 및 감사인사





# 회칙『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의 신학적 고찰

Gerhard Ludwig Muller 추기경(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 1. 서론

프란치스코 교황과 사회복지평의회와의 만남에서 “Caritas는 교회의 본질로써 그리스도인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조직화를 통해서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함.

## 2. 본론

1. Caritas에 대한 신학적 기저는 1요한 3, 24 : 인간의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Caritas
2. 세상의 다양한 학문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도움을 준다. (국가와 사회와의 연대)
3.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비이다.
4. 사회교리의 원리에 따른 사랑의 실천(단순한 NGO)
5.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실천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관계성)

## 3. 결론

Caritas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굳은 믿음  
자비의 특별 희년의 메시지 = 사회의 변화



# 가톨릭 파선단체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과제들

Dr. Michael Thio (국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장)



## 1.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선행을 갚아..., (잠언 17)

우리의 근본 도전 과제는 우리의 정신에서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보존, 유지, 활성화 하는 것이다.

1.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안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복음적 가치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2.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밀함, 거룩함, 사랑,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영성을 보존하고 성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대화와 사회복음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외적 복음화)

3. 성 빈첸시오와 복지 프레드릭 오자남은 가난한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을 찾았다. 그들의 카리스마 중 하나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었다면, 영혼을 돌보는 것은 언제나 그들 사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내적 복음화)





# 가톨릭 파견단체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과제들

Dr. Michael Thio (국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장)



## 2. 글로벌 빈곤 - 새로운 빈곤의 도전 (빈첸트 식 대응)

1. 우리의 섬김은 언제나 이타적이어야 한다.
2.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 단체들과 연대해야 한다.
3. 체계적인 변화를 피하고 지지해야 한다!(존엄성회복과 자립)
4. 단순함, 겸손, 온화함, 열성, 거룩함이라는 덕목을 따르자!

## 3.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
2. 교회의 깊은 본질(말씀선포, 성사전례, 카리타스)
3.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6\*17)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 5,16)



# 성경적 사랑에 대한 유대교 관점

Rabbi. David Shlomo Rosen (International Director of interreligious Affairs, American Jewish Committee)

## 1. 히브리어와 히브리성경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다양하다. 희칙은 Eros와 Agape를 구분 지어 자세히 설명하지만, Eros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없는 것 같다.

1. 야다 : 토라에서 보게 되는 “사랑”과 연관 있는 가장 첫 번째 용어로 육체적 맥락을 지니고 있으나(‘알다’= ‘야다’: 부부관계/Gn), 이는 경험의 친밀성을 나타낸다.(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귀는 사람/Ex) 이스라엘 아이들 또한 하느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라는 훈육을 받는다.
2. 아하바 : 희칙에서 말하는 “사랑/Caritas”의 의미의 단어인데, 육체적으로도, 형이상학적으로도 쓴다.

(육체적 사랑에 기반한 사랑은 암논과 타마르의 사랑/ 형이상학적 사랑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희칙의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선포’는 유대인이 매일 바치는 기도이고, 존재의 중심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레위19,18)=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

특히 하느님의 거룩한 모상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길을 위해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성경적 사랑에 대한 유대교 관점

Rabbi. David Shlomo Rosen (International Director of interreligious Affairs, American Jewish Committee)

3. 치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용서”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단어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연민의 정으로 죄에 대하여 진정한 속죄를 하면 우리 죄를 씻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이는 유대교에서 “추바”로 알려진 개념으로 “돌아오다”라는 뜻이다.
4. 추바: 하느님께서 당신 피조물에 대해 품으시는 사랑으로 랍비들의 사상과 가르침의 중심이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해당되는 개념인데, 공동체에 해당하는 개념에는 “계약적 사랑”의 의미가 있다.
5. 케세드: 사랑과 그 이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은총”에 해당한다.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자비/자애)

하느님 호칭(Elohim-공정함, YHVH-자비)에서 처럼 유대교에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하느님의 판결보다 우선한다. 하느님의 “케세드”가 세상에 미래를 보장한다.





# 자비에 대한 이슬람교의 관점

Prof. Saeed Ahmed Khan (Wayne State University)

“아살라무 알라이쿰”(전능하신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1. 이슬람교인들에게 있어서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수백번 입술을 스치고 지나가는 단어이다.(1일28번) 이는 이슬람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느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책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2. 이슬람교인의 관점에서 “자비”의 개념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서”라는 전통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1. 하느님의 첫 번째 자비의 행위는 “창조” 그 자체이다.(인간은 죄 없이 태어나나 죄 지을 수 있는 본성) (이슬람교에서는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태만이다.)
  2. 하느님의 두 번째 자비의 행위는 “지식”을 전해준 것이다.(코란에 ‘알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임(지식)’이다.
  3. 하느님의 세 번째 자비의 행위는 “라마단(기쁨의 달/축복의 달)”을 주신 것이다.(이슬람교인들이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와 그가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하는 자비를 표현하는 은유-이해와 공감-이기에)
  4. 하느님의 네 번째 자비의 행위는 “하느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주신 것이다.(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솔로몬, 다윗... 세레자 요한, 예수... 모하메드까지 하느님의 예언자로 존경한다. 또한 토라, 복음, 코란 등은 단순히 도덕적인 지침일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선사하는 축복이자 자비를 보여주는 것)





# 자비에 대한 이슬람교의 관점

Prof. Saeed Ahmed Khan(Wayne State University)

3. 이슬람교에서는 “자비”를 “개인이 다른 이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아랍어로 자비는 R-H-M에서 파생되어 “Rham(자궁: 보호자, 모성애라는 축복이자 선물)”이 되었다.
4. 하느님의 자비는 “사랑과 정의”를 통해 보여진다.
5. “자비”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인데 반하여 “자선”은 인류가 그 자비를 전달해 주는 메커니즘 자비로서의 자선은 “영적 또는 감정적 영양실조를 극복해 준다.(미소=자선: 이해와 공감)
6. 이슬람교의 전통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99개의 이름, 또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두 가지, “알-라흐만”과 “알-라힘”은 자비를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속성은 인류가 그것을 본받아 살도록 인도하는 지침이며,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코란에서는 인간을 지상의 하느님의 대리자로 말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자비”는 하느님 만의 특별한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메시지는 하느님의 종인 인간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한다.





# Caritas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 :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이해

Prof. Fabrice Hadjadj(Director, Institut Philanthrop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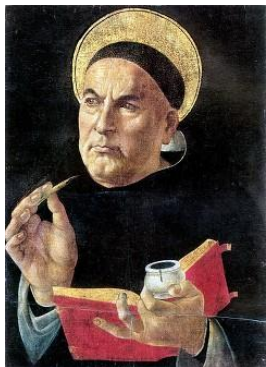


1.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는 더 이상 현대인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 합리성, 정치적 진보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인간에게 전해져야 한다.
2. 사랑에 대한 신학적 성찰  
현 시대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의 삶에로의 참여인 사랑은 그 자체로 변함이 없다.

# Caritas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 :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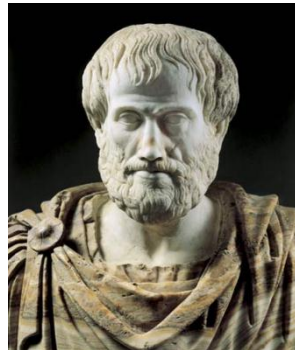
Prof. Fabrice Hadjadj(Director, Institut Philanthropos)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정'에 대한  
다섯 가지 명제를 나열한 "신학대전"  
에서 사랑에 대해



1. 그는 친구의 존재를 원하고,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2. 그는 친구에게 좋은 것을 원한다.
3. 그는 친구를 위해 좋은 것을 해준다.
4. 그는 친구와 함께 기쁨 안에서 살아간다.
5. 그는 친구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논한 순서를 뒤집어 쓴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1. 친구를 위해 좋은 것을 원하고
  2. 친구를 위해 좋은 것을 해주고
  3. 친구의 존재를 원하고,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 사랑은 다른 이를 위한 좋은 것을 원하기 전에, 그가 존재하기를, 그가 참으로 그 자신이기를 원한다.

# Caritas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 :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이해

Prof. Fabrice Hadjadj(Director, Institut Philanthropos)



## 3. Joseph Pieper의 사상과 Joseph Ratzinger로 이어진 현상학적 관점

Agape의 요소가 Eros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육화의 영성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적이 된다는 것이다.(본질적인 것이 사랑 안에 있다. 성 프란치스코, 마더 테레사 등)

## 4. 사랑은 메시지가 아닌 함께함이다.(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레위인-메시지, 사마리아인-존재)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라!”가 아닌 “온 세상으로 가라!” 하셨다.

과학기술의 신기루 시대에, 신적인 사랑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인간미가 있는 사랑이다.









# 미사, 강론

H.E. Card. Paul Josef Cordes(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 임시의장)

## 루카복음 16, 19-31 :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사회는 사랑의 활동을 잘 인지한다. 선한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창문과 같다. 또한 신앙에 대한 대화로 이끌어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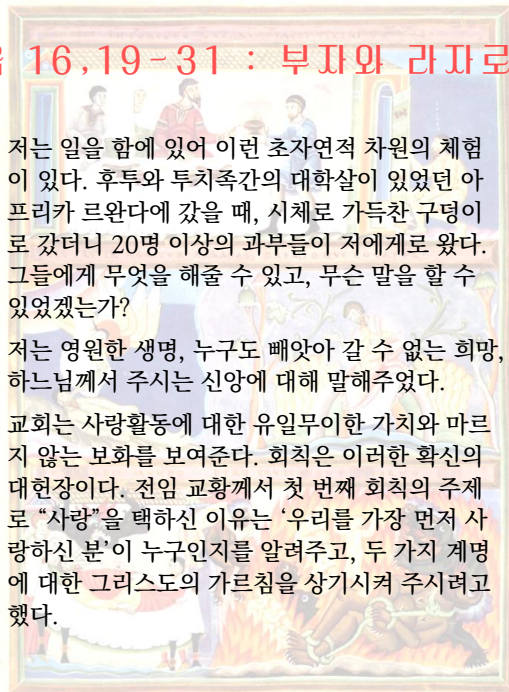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이고 피곤한 일일 수 있고, 때론 정치적 힘이나 경제적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용기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칙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없애줄 수 있다.



저는 일을 함에 있어 이런 초자연적 차원의 체험이 있다. 후투와 투치족간의 대학살이 있었던 아프리카 르완다에 갔을 때, 시체로 가득찬 구덩이로 갔더니 20명 이상의 과부들이 저에게로 왔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영원한 생명,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희망,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앙에 대해 말해주었다.

교회는 사랑활동에 대한 유일무이한 가치와 마르지 않는 보화를 보여준다. 회칙은 이러한 확신의 대현장이다. 전임 교황께서 첫 번째 회칙의 주제로 “사랑”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가장 먼저 사랑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두 가지 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시려고 했다.



오늘 복음은 우리의 사랑활동에 있어 하느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조언하신다.

이기심과 무관심은 큰 벌을 받는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신 것이다. 또한 제가 르완다에서 울고 있는 과부들에게 했던 말을 명백하게 확증해 준다. 바로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이다. 이 지구상의 불의와 빈곤으로 ‘눈물의 골짜기’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궁극적인 위안을 준다. 또한 그리스도가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활하리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빈곤 퇴치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까지 뛰어 넘으시는 주님 안에 희망을 두자.





# 회칙에 비추어 본 사랑의 봉사를 위한 그리스도교의 인류학적 개요

Prof. Fr. Paolo Asolan. 교황청 라페란 대학교

## 1. 카리타스는 교회를 좋은 길로 이끌고, 교회 사명의 본질이다.

1. “카리타스, 새로운 윤리와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주제가 사랑과 진리나 신앙과 애덕 사이의 연관성이 있음.
2. 전체 그리스도교 정신은 신앙,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만나는 것”에서 비롯됨. 그리스도께서 복음화 과업뿐 아니라 사랑의 봉사라는 교회 활동을 하도록 파견
3. 카리타스를 실천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기관의 전문가들의 책임 :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관료적인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직과 전문지식이 교회의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4. 회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헌신의 목표가 인간 구원의 확립.

## 2. 카리타스의 실천 속에는 하느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항상 현존한다.

1.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뿐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의 상호 작용 방식에 기초하여 행동해야 함.
2. 그리스도교 공동체들과 가톨릭 사회복지기구들이 현재 직면한 도전은 하느님과 인간의 결속된 관계를 그리스도교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일







# 회칙에 비추어 본 사랑의 봉사를 위한 그리스도교의 인류학적 개요

Prof. Fr. Paolo Asolan. 교황청 라페란 대학교

## 2. 카리타스의 실천 속에는 하느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항상 현존한다.

1. 부적절한 인류학 : 정부단체, 국제단체, 비 가톨릭 단체들과 협력이 내포하고 있는 인간 관과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이 보여주신 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경우가 있음.
2.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인류학 :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인간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현존임(지혜서). 또한 회칙 11항에서 하느님의 모상은 여성의 창조 및 남녀 사이의 관계와 연관지어 해석함.

## 3.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1. 하느님의 절대성과 인간 문화 및 현실의 우연성 사이의 관계, 인간의 진리 추구와 진리의 영이 주시는 신앙의 응답 사이의 관계, 인간의 자기 구원 시도들과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일
2. 대화와 토론, 솔직하고 열린 문화적 논쟁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교 신앙은 상대화와 이념적 경직성을 피하게 됨.
3.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은 양심이 기준점.







# 회칙에 비추어 본 사랑의 봉사를 위한 그리스도교의 인류학적 개요

Prof. Fr. Paolo Asolan. 교황청 라페란 대학교

## 4. 하느님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움을 통해 세상에 “개입하도록” 허락하신다.

1. 그리스도교의 인간론이 주목하는 가난한 이들, 즉 누군가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는 어떤 고유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가?
2. 가난한 이들은 교회를 좋은 길로 이끄는 한편, 그리스도의 신비와 그분의 은총을 드러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전체가 부분들보다 월등하다”고 밝히고 있음.



# 회칙에 대한 Caritas학적 관점

Prof. Rainer Gehrig (무르치아 가톨릭대학교)

## 1. 오늘날 카리타스학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 1. 카리타스학의 발전과정

- 카리타스학에 대한 전통적인 개요서에 토미즘의 도덕적 관점에서 신학적 덕의 특성을 하느님 사랑, 자기 자신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제시
- 19세기 말, 산업화와 복지 국가가 태동, 사회 경제 분야의 조직화로 인해 전문사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조직화된 카리타스 활동에 대한 필요성 대두
- 20세기 초 독일 카리타스 연구소 설립, 카리타스 활동이 국가적 차원(1897년), 이후 카리타스의 이름으로 교구 수준까지 퍼져나감. 단체(조직)로서의 카리타스의 시초
- 카리타스학의 규정: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교의 덕목 각각을 다루는 카리타학은 공동체에 대한 자유롭고 시급한 지원으로,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영감을 받고 공동체의 의지와 양심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로 이해되며, 이는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에서 힘과 의욕을 얻게 됩니다.”

### 2. 카리타스학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

- 사랑이라는 용어에 담겨있는 어려움 : 인간의 삶과 카리타스 활동이 포함되도록 이 개념이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사랑의 봉사의 논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
- 세속주의와 행동주의를 비판
- 신학은 전문적 사회복지를 풍성하게 해주는 필요한 참고 학문으로만 제안.



# 회칙에 대한 Caritas학적 관점

Prof. Rainer Gehrig (무르치아 가톨릭대학교)

## 1. 오늘날 카리타스학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3. 연구소 및 교육기관의 부족
  - 신학대학에서 카리타스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성찰할 연구소의 수 부족
  - 신학대학 과목에서 카리타스학은 단순히 교수직을 위한 과목이거나 필수과목이 아님
4. 카리타스신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
  - 카리타스 활동 즉 디아코니아는 현재 교과 전통과 저자들의 접근 방식에 따라서 그 신학적 토대가 다양함
  - 카리타스의 신학적 토대 :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일치가 사랑의 봉사의 주축임을 확인, 그리스도교 신앙에 기반한 사랑의 활동, 교회의 사랑 실천의 고유성을 제시.

## 2. 사랑의 신학적 토대 : 디아코니아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위해 “사랑”을 재평가하기.

1. 사랑 : 카리타스학의 해석학적 관점 : 회칙의 해석학적 관점은 우리에게 오늘날 서로 다른 문화, 종교, 언어에 따라 그 의미를 끊임없이 대화함으로써 신학적 관점에서 특히 “사랑”의 의미론적 영역을 성찰하고 재발견하고 재평가를 요구함
2. 그리스도교 신앙에 기반한 사랑의 봉사 :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
3. 교회의 사랑실천의 고유한 형태 : 교회의 삼중임무에서 표현된 교회의 본질인 아가페와 상응



# 회칙에 대한 Caritas학적 관점

Prof. Rainer Gehrig (무르치아 가톨릭대학교)

## 3.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1. 카리타스학의 역사적 관점 : 20세기 초 독일에서 카리타스학이 재정립될 때 가톨릭교회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연구였음. 19세기와 20세기의 유산과 저술들을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지식의 보고를 확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 오늘날 활동에서 이 역사적 의식과 그 중요성이 살아있게 해야 한다는 것.
2. 사랑의 일치(에로스 + 아가페)에서 비롯된 사랑의 활동이 갖는 연민의 관점 : 사랑의 개입에는 이성적 전문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에로스가 포함되어야 함.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을 계승.
3. 마음의 양성 :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사랑의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마음의 양성 필요성을 강조,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힘입어 인격적으로 함께 하는 것.
4. 사랑의 개입에 관한 신학적인 대화를 통해 교회 일치에 문을 열 : 그리스도교 교파 간 차원 뿐만 아니라 연민과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모든 종교 간에 다리를 놓는 것.

## 4. 독립적인 신학, 과학의 영역으로서 카리타스학 : 교회가 카리타스나 사랑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내 다른 단체들과 협력

## 5. 카리타스학의 개념도 : 교재 참조







##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와의 연관성 확인

1

- "말씀의 선포, 성사거행, 사랑의 봉사"의 상호성에 기반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사상은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 안에서 재확인 되었고, 회칙의 기본적 개요들이 그 가치의 힘을 더욱 강하게 지니고 우리의 사랑의 봉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 따라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이 회칙을 다시 읽어야 함!





##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랑 Caritas의 봉사”의 올바른 개념정의와 사용

### 2

- 사랑(Caritas)의 개념: “사랑이 삶의 중심입니까? 사랑이 교회의 중심입니까?  
(교황 프란치스코) “사랑이 정말 교회의 심장입니까?”
- Muller 추기경: “사랑(Caritas)은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느님의 생명이다.”  
“사랑(Diaconia)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의 본질적 표현인 것과 같다.”
- Tagle 추기경: “우리는 사랑(Caritas)이 교회 삶의 중심임을 망각하고 있다.”
-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랑(Caritas/ Charity)과 자선(alms-giving)”을 동일시 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우리의 모든 사랑의 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사랑(Caritas)는 목표이다. : 인간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삶을 함께 나누도록 불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가장 풍부한 의미로 사랑(Caritas)의 개념을 재발견하고 다시 사용하도록 불렸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의 사용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풍부한 의미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정확한 명칭은 개별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교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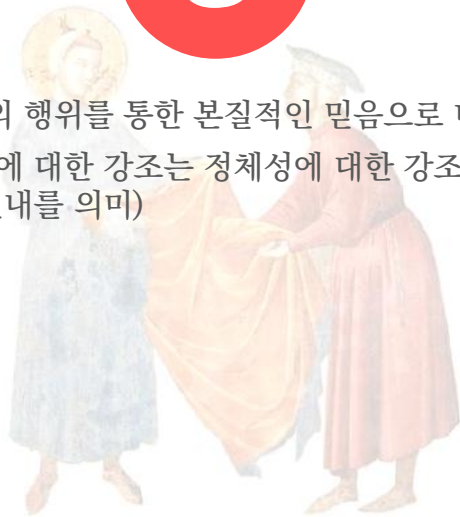




## 사랑의 봉사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방법으로 이웃을 찾아 나서는 것

### 3

- 사랑의 봉사는 하느님의 사랑의 행위를 통한 본질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사랑의 봉사 안에 신앙의 측면에 대한 강조는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공동선의 추구에 대한 강조이다.(이해와 자유와 인내를 의미)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 사랑 Caritas과 인류학의 관계는 사랑의 봉사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주는 것

### 4

-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 “봉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단지 봉사를 받는 대상자나, 권리를 받는 사람으로 환원시킬 수 있나?”
-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하느님께서 인간을 자유로이 대하시기에, 우리는 인간을 우리의 생각대로 강제할 수 없고, 다만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이다.
- Fr. Paolo Asolan: “가난의 눈으로 가난을 바라볼 수 있는가?”(그리스도론적 관점-십자가 선택-)  
“가난한 사람들과로부터의 도전은 무엇이며, 그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 Prof. Fabrice Hadjadj: “사랑(Caritas)은 육체와 영혼을 지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따라 인간을 변화의 대상으로 축소시키려는 것을 피해야 한다.
- 회칙은 “믿음은 만남”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한 인격체로 만나시듯, 가난한 이들을 한 인격체로서 만나야 한다.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첫 장소가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 이웃에 대한 봉사가 인격적 만남을 결여 했다면, 그것은 참된 봉사가 아니다.(최우선 요소는 인격이다.)







## 상호협력과 연대의 시대

# 5

-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은 우리가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것들이기에 동반자와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다.
- 종교간의 가장 좋은 협력의 상태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삶에 대한 공헌이다.
- 종교는 세상 안에 선한 힘을 넣어주기 위해 존재한다.
-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비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자비의 선물이다.
- 현대의 문제들의 복잡성은 상호협력과 공동협력을 하도록 자극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교회의 유기체적 조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므로, Cor Unum은 교회의 다양한 사랑실천의 단체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 사랑 Caritas은 하느님 사랑의 증거이기에 복음선포의 한 형태이다.

### 6

-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하느님께로부터 기인한다면 사랑(Caritas)은 그 자체로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
-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강요하는 개종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이기에 사랑의 고유한 요구로 사랑을 실천한다.
- 이러한 의미에서 복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다.
- 사랑의 행위는 인간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기에 우리의 모든 사랑의 행위에 생기를 불어 일으키고,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내적 영감이다.
- “우리 모두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에 분명하게 공헌하고 있다.”(교황 프란치스코)





## 사랑의 증거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 7

- 비록 그들이 교회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이러한 차원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 그 중의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을 만드는 것
- Tagle 추기경: “정치적인 것들 그 자체에는 당파적인 면이 있으나, 사랑(Caritas)는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조심해야 할 점은,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친교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
-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확고한 존재로 인해 “상황들은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 그것이 가장 첨예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화해의 위대한 일은 계속되어야





## 사랑 Caritas의 신학을 강화하자!

# 8

- 1897년 독일 Freiburg에서 Caritas가 조직됨
- 1925년 독일 Freiburg 신학교에 Caritas학과 개설
- 사랑의 행위가 오직 사회교리와 연계해서가 아닌, 특정한 신학적 배경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랑의 활동 그 주체가 교회이기 때문이다.
- 교회는 가시적인 사회이긴 하지만, 꼭 가시적인 사회만은 아니다. 따라서 교회생활에 대한 기준은 단순히 사회생활에 대한 기준과는 다른 특성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 그것은 인간적 사랑과 신적인 사랑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답해야 하는 것이다.
- 교회의 차원과 교회의 봉사이므로 사랑의 봉사에 대한 그리스도론적 기초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 따라서 각 나라에 “사랑의 신학”이 반영될 자리가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 사랑의 봉사가 교회의 본질 중 하나라면, 특히 미래 사제양성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사랑의 신학”을 가르쳐야만 한다.
- Muller 추기경: “사랑의 신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지적인 보류’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 시키고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 폐회 파견미사

H.E. Card. Robert Sarah(교황청 경신성사성 장관)

